

2025 포럼 비프 섹션 및 세션 일시

장소 | 부산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섹션 A 연대를 꿈꾸는 아시아영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OTT와 국제공동제작을 축으로 아시아 영화가 직면한 산업적 과제와 변화 양상을 살피고,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의 조건을 탐색한다.

9/18 (목)	16:30 - 18:30	세션 1 아시아영화, 국제공동제작의 새 챗터를 열다
9/20 (토)	10:30 - 12:30	세션 2 OTT는 아시아영화 산업을 살리는가, 삼키는가

섹션 B 한국영화를 구하라

1990년대 중반 한국영화가 이룬 성취와 함께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과 한국 상업영화 및 독립영화의 생태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9/18 (목)	13:00 - 15:30	세션 1 1996 플래시백: 한국영화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9/21 (일)	16:00 - 18:30	세션 2 한국독립영화는 어떤 꿈을 꾸는가

섹션 C 시네마의 미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영화교육

디지털 영상 복원과 활용, 지역 시각문화의 세계화, 아시아 협력 미디어 교육 사례를 통해 기술과 교육이 어떻게 미래 영화 환경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9/19 (금)	10:00 - 12:30	세션 1 리부팅 한국영화 공동주최: 한국영상자료원
	13:30 - 16:30	세션 2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시각문화의 미래 공동주최: 동서대학교
9/20 (토)	14:00 - 17:00	세션 3 아시아 영상 교육의 미래 공동주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섹션 D 한국영화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지도

한국영화계의 자발적 연대 단체인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와 '영화제 정책모임'이 영화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과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9/19 (금)	17:00 - 19:00	세션 1 영화제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 주최: 영화제정책모임
9/21 (일)	13:00 - 15:30	세션 2 『멸종위기영화』 K-무비, 다음 10년을 위한 대화 주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2025 포럼 비프

개최일자	2025.9.18(목) ~ 9.21(일)
개최장소	부산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주최	(사)부산국제영화제
공동주최	동서대학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산영상위원회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하차 (12번, 6번 출구), 도보 8분
버스	신세계백화점 하차, 도보 8분 일반: 5-1, 39, 40, 63, 115, 139, 141, 155, 181 좌석·급행: 307, 1001, 1002



FORUM BIFF 2025

18-21 SEP

다시,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 만난다

Revisiting the Path of Asian Cinema

섹션 A
연대를 꿈꾸는 아시아영화

섹션 B
한국영화를 구하라

섹션 C
시네마의 미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영화교육

섹션 D
한국영화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지도 그리기

2025 포럼 비프 일정표

9/18 (목)	
13:00 - 15:30	<p>2025 포럼 비프 개회식</p> <p>기조발제 민규동 (영화감독)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면 건강해지나요</p>
	<p>섹션 B : 세션 1 - 1996 플래시백: 한국영화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p> <p>사회 : 김이석 (동의대) 발제 : 안시환 (영화평론가), 김성훈 (씨네21) 토론 : 이준동 (나우필름), 주유신 (영산대), 차승재 (프로듀서), 한재덕 (사나이픽처스)</p>
16:30 - 18:30	<p>기조발제 지아장커 (영화감독)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한 나의 영화 여정</p>
	<p>섹션 A : 세션 1 - 아시아영화, 국제공동제작의 새 챗터를 열다</p> <p>사회 : 서대정 (부산대) 발제 : 필립 웨아 (영화평론가), 장건재 (영화감독), 에이코 미즈노 그레이 (프로듀서), 하야카와 치에 (영화감독) 토론 : 강내영 (경성대), 량양 (프로듀서),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p>
9/19 (금)	
10:00 - 12:30	<p>섹션 C : 세션 1 - 리부팅 한국영화</p> <p>기조발제 :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 사회 : 이주영 (한국영상자료원), 박세호 (한국영상자료원), 정찬철 (부경대), 김승경 (한국영상자료원) 발제 : 김병인 (넷플릭스), 박민영 (한국영상자료원) 정민재 (노느니특공대엔터테인먼트), 유태경 (중앙대) 토론 : 강윤성 (영화감독), 김익상 (서일대), 손승현 (웨스트월드)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p>
	<p>섹션 C : 세션 2 -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시각문화의 미래</p> <p>사회 : 최원호 (동서대) 발제 : 손리진 (베이징필름아카데미), 마이클 영 (뉴욕필름아카데미), 에릭 오 (애니메이션 감독) 토론 : 김해윤 (동서대) 공동주최 : 동서대학교</p>

9/19 (금)	
17:00 - 19:00	<p>섹션 D : 세션 1 - 영화제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p> <p>사회 : 모은영 (서울독립영화제) 발제 : 이선필 (오마이뉴스) 토론 : 김성준 (전주국제영화제), 최창환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황혜림 (서울국제여성영화제)</p>
	<p>섹션 A : 세션 2 - OTT는 아시아영화 산업을 살리는가, 삼키는가</p> <p>사회 : 박현선 (조지메이슨대) 발제 : 박진희 (중앙대), 필 탕 (GrX Studio) 토론 : 돈사론 코빗바니차 (방콕국제영화제), 이화배 (이화배컴퍼니), 황승흠 (국민대)</p>
9/20 (토)	
10:30 - 12:30	<p>섹션 A : 세션 2 - OTT는 아시아영화 산업을 살리는가, 삼키는가</p> <p>사회 : 박현선 (조지메이슨대) 발제 : 박진희 (중앙대), 필 탕 (GrX Studio) 토론 : 돈사론 코빗바니차 (방콕국제영화제), 이화배 (이화배컴퍼니), 황승흠 (국민대)</p>
	<p>섹션 C : 세션 3 - 아시아 영상 교육의 미래</p> <p>기조발제 :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회 : 최용배 (한국예술종합학교), 최민영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제 : 이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힘 소티사 (캄보디아 정보부), 안지혜 (워펜) 토론 : 덴간 다이스케 (일본영화대학), 리우위 (베이징필름아카데미), 막볼 무바락 (영화감독), 이승희 (영화평론가), 티안 리 (에일대) 공동주최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p>
9/21 (일)	
13:00 - 15:30	<p>섹션 D : 세션 2 - 『멸종위기영화』 K-무비, 다음 10년을 위한 대화</p> <p>사회 :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발제 :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장은경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하영 (하하필름스), 오정민 (영화감독), 김창섭 (필름메이커스), 조소나 (프로듀서), 김보경 (<3670>, <유령> 연출팀)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세영 (미디액트), 양준영 (키노라이츠) 주최 :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p>
	<p>섹션 B : 세션 2 - 한국독립영화는 어떤 꿈을 꾸는가</p> <p>사회 : 문관규 (부산대) 발제 :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차한비 (영화 저널리스트), 박송열 (영화감독), 박두희 (프로듀서) 토론 : 김진유 (영화감독), 성송이 (씨네스파), 조영각 (프로듀서)</p>

장소 | 부산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섹션 D를 제외한 모든 섹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2025 포럼 비프

포럼 비프는 영화를 매개로 한 지적 교류와 담론 생산의 플랫폼으로, 산업·창작·비평·정책·기술·교육을 아우르며 영화인·연구자·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시네마 트렌드 논의의 장을 지향합니다. 올해 포럼은 아시아영화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영화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영화담론의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OTT와 국제공동제작은 아시아 영화의 산업적·미학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논의되며, 이를 통해 아시아 영화가 직면한 창작 환경의 전환과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한국영화의 지난 30년의 성과와 그 이면의 구조적 위기를 점검하고, 차세대 영화인 발굴과 독립영화의 자생적 발전 조건을 탐색합니다.

아울러 동서대학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와와의 협력을 통해 포럼의 의제를 한층 더 풍부하게 구성했습니다. 고전영화 복원과 VFX/AI 기술, 지역 기반 시각문화의 세계적 확산, 아시아 영상 교육, 그리고 한국영화 위기 속 연대의 가능성까지, 한국영화 생태계를 재설계하기 위한 집단적 지혜와 새로운 비전을 공유합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포럼 비프는 변화의 시대에 맞춰 영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아시아영화와 한국영화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석영화연구소

故 김지석 부집행위원장의 뜻을 이어받아 2018년 설립된 지석영화 연구소는 아시아영화에 대한 학술 교류와 교육 등 이론·실천적 활동을 펼치는 한편,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 및 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석영화연구소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아 포럼 비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영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영화 예술과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